

광주 취업자 수 늘었다

지난달 63만명 전년보다 1.1% ↑ ... 전남은 2.7% ↓

전국 취업 증가폭 26개월만에 최저 기록

지난달 광주지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소폭 늘어난 반면 전남 지역은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을 들어 지역별 고용사정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12일 광주지방법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주의 취업자는 6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비해 7천명(1.1%) 늘어난 것으로, SOC 및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 지난해 광주의 실업

자는 2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6천명(21.8%)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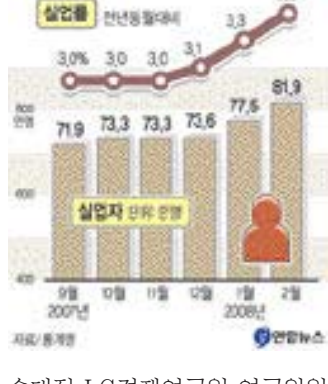
반면 전남은 지난달 취업자가 87만명에 그쳐 1년 전에 비해 2만4천명(2.7%) 줄었다.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업업과 광공업 취업자가 각각 6천명(29.7%), 7천명(9.3%) 줄었기 때문으로,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7천명(37.8%)이나 늘었다.

전국도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21만명 증가에 그쳐 새 정부의 목표치인 연간 35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달 전국 취업자는 2천288만4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1만명(0.9%)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2월(20만5천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31만5천명)과 7월(30만3천명) 30만명을 넘어섰으나 8월에 29만3천명으로 줄어든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정부의 6% 내외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마저 제기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소비둔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생산체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1, 2월 지표를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하반기에 고용여건이 개선되더라도 35만명 목표는 버거운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원자재 파동 중소기업까지 '불똥'

레미콘조합 "납품가 안올리면 생산 중단" 강경

건설업계 "공급 중단 단호 대처" 맞서 ... 협상 난항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한국레미콘조합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가격의 인상과 관급 공사의 입찰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레미콘조합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멘트가 지난해 대비해 30%, 자갈은 26% 정

도 가격이 올랐지만 레미콘 가격은 2004년부터 제조원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여러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또한 "관급 공사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뀐 뒤 입찰수량제한이 없어지고 법에서 정한 분리발주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레미콘업체만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레미콘 가격을

원자재가격 변동과 연동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관급 입찰수량을 전년 대비 110%로 제한해 다수의 레미콘 업체의 참여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중소 레미콘업체 670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이들 조합은 전체 레미콘 물량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조합측이 밝히고 있어, 생산중단이 시작돼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레미콘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급중단 등의 집단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이다. /연합뉴스

원자재값 급등 경영난 中 小 企

국책銀, 운영자금 2조 지원

국책은행들이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 급등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책은행들의 지원체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원자재값·유가 상승·환율 급등락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우대 운영자금 2조원을 책정했다.

이 자금은 기업별로 2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금리도 일반 금리보다 0.5%포인트 우대된다.

산업은행은 또 원자재값 급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가 도래하는 운영자금이 있을 경우 약식심

사를 거쳐 1년 이내에 만기를 연장해주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제도도 운영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담보가 없어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중 수출이행능력이 확실한 경우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해 주는 '차세대 수출기업 특례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농협전남지역본부 '농산물 세일즈단' 출범

농축산물 판로 개척 나선다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3일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 대강당에서 '농산물 마케팅 세일즈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 전남지역 농축산물 유통액의 50%인 2조6천억원 판매에 나선다.

이날 출범하는 '마케팅 세일즈단'은 전남본부 조영조 경제본부 부장을 총괄단장으로 각 시·군 농협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남 쌀을 비롯한 각 지역의 소량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상품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자 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남에 연고를 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150만명의 회원을 확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황준연 전남본부 농산물마케팅 팀장은 "확보된 회원 1인당 연간 20kg 쌀 4포대를 소비할 경우 연간 2천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전남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출액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일즈단은 6년 연속 농림부와 소비단체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에 최다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미곡관리와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나주·담양·장성·진도 등 시·군연합사업단의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연합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시·군은 대표농산물 2~3개를 선정, 전남본부 연합사업단의 광역브랜드인 '햇쌀' 출하 품목에 포함시켜 출하할 계획이다.

축산분야도 최근에 개발된 서부권 공동브랜드인 '녹색한우'와 동부권 공동브랜드인 '지리산 순한한우' 등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전남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 데이(Day)마케팅(오이데이·오리데이·애플데이·구구데이 등)'을 추진해 소비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봄 맞이 소품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인테리어 소품매장 프로방스가 다양한 봄 인테리어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크리스털 스탠드 3만~29만원, 액틱 전화기 7만9천~20만원, 보석함 3만3천~5만3천원 등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전남 산업대출 증가액 5년만에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은행들이 지역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산업대출 증가액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비스업종의 대출이 크게 늘었으며, 건설업도 장기적인 시장침체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18조2천

92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13.4%(2조1천614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다. 반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가계대출은 7천973억원에 그쳐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산업대출의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가계대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각 은행들이 산업부문 대출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역협 광주·전남지부장

김병술씨 임명

한국무역협회는 13일 김병술(50) 고객지원팀 무역건설팀을 광주·전남지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고영만 지부장은 한국무역협회 산하 전자무역추진센터 사무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겼다.

완도출신인 신임 김 지부장은 84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뒤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무역아카데미 무역연수팀장 등을 거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社 告

광주·전남여성경제인 포럼

"오후 5시로 변경됐습니다"

백영훈 원장 '21세기 여성경제인 비전과 선택'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제 30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오후 5시로 변경,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21세기 한민족시대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3월 14일(금) 오후 5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21세기 한민족시대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
- 강사 :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 州 日 報 社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80년 전통의 보청기 제조사

1588-8426 / 062-722-0100

세기보청기